



오늘의 날씨와 생활

2월 18일 화요일 음 1월 25일 (2월)

기상정보

흐리고 가끔 눈



제주도는 흐리고 곳에 따라 산발적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 낮 최고 기온은 7-10℃로 예상된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the day,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and precipitation chances.

Table with sunrise/sunset times and moon phases for the day.

Table with 7-day weather forecast.

Table with health and safety information, including air quality and UV index.

월드뉴스

야당 의원 야유한 아베 총리 “잘못했다”

아베 총리 지지 여론 악화

아베 총리는 17일 열린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 집중심사에서 “의미 없는 질문을 한다”고 야당 의원에게 야유를 보내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불규칙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베 총리가 야유 논란에 대해 사죄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2일의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정부 질의에 나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쓰지모토 기요미 간사장 대행을 향해 자리에 앉은 채로 “의미 없는 질문을 한다”고 야유를 퍼부어 논란을 일으켰다.

당 발언을 철화하지 않으면 예산심의 일정을 보이콧하고 중의원에 징계 동의를 제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결국 아베 총리가 문제의 발언에 대해 사죄의 뜻을 표명하는 것으로 ‘야유 논란’은 일단락됐다.

쓰지모토 간사장 대행이 ‘사쿠라를 보는 모임’ 논란을 비롯, 아베 총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거론하면서 “도미는 머리부터 썩는다. 이 지경까지 왔다면 머리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자 이에 대한 반응이었다.

아베 총리는 매년 4월 총리실 주관의 봄맞이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에 자신의 지역구 후원회 인사들을 대거 초청하는 등 세금을 들어가는 공적 행사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 영향으로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입헌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공동으로 아베 총리가 사죄하고 해

연합스

한리일보 제주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이 용 곤 편집국장 조 상 운.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한라칼럼



문만석 (사)미래발전전략연구원장·법학박사

서비스의 기본을 생각하다

설 연휴에 가족들과 함께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찾았다. 2018년 개관식 이후 전시작이 바뀌기도 해 가족들과 함께 한 두 번째 방문이었다. 이 전시관은 벙커의 비밀스튜디오와 화려하고 신비한 미디어아트의 조화로 많은 관람객의 발길을 이끄는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장으로 올라가는 길을 진행요원이 막무가내로 막아섰다. 주차장이 협소해 차량의 진입을 막는다면, 관람을 위한 기본적인 안내를 해야 함에도 차를 세우지 못하게 막아설 뿐이었다. 결국 멀리 갖길 주차를 해 전시공간까지 걸어 올라갔다.

을 청구했다. 근거를 물었더니 업체의 내규이고, 2001년 이후 출생자는 성인요금을 받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 성인요금을 지불했지만, 기분이 개운치 않았다. 전시 관람은 민사이니 민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고,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이다.

렌 버킷은 ‘평판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잃는 데는 5분이면 족하다’고 했다. 위기의 제주이다. 코로나19는 사람의 욕체보다 마음에 공포와 불신이라는 치명적인 감염증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은 입구에서부터 불쾌한 감정과 마주해야 했다. 주차

막 입시를 치른 아이에게 성인요금

열린마당

당신의 착한 히어로, 이곳에 있다



김충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등장하는 히어로인 ‘어벤져스’는 지구와 우주를 구하기 위해 모친 슈퍼 히어로들이다.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 등 이름만 들어도 눈에 그려지는 그들의 모습은 매우 멋있다.

어둠 분과 세무사 두 분, 감정평가사 한 분이 당신을 기다린다. 퇴직 공무원 두 분은 현직에 있을 때처럼 매일 출근하고 있다. 모두 기쁜 마음으로 당신을 맞아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해결할 것이다.

숲가족님과 더불어, 숲과 더불어



고윤원 (사)제주생명의숲국민운동 상임공동대표

선진국 숲 교육자들은 숲에서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기능과 역할부터 나무를 심고 꺾질을 벗기는 방법, 동물, 곤충 은신처를 만드는 법 등을 가르친다.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자연에서 뛰어놀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숲을 돌보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숲학교의 목표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멋진 사람들. 우리의 착한 히어로. 그들이 바로 민원상담관이다.

올해에는 민원인들을 맞이하기 위해 조금 더 빠르게 준비하기로 했다. 찾는 만큼 기회는 주어지는 법. 주 2회(월, 수) 운영하던 법률상담을 주 3회(월, 화, 수)로 늘리고, 세무상담은 주 1회(목)에서 주 2회(목, 금)로 확대했다.

아이들이 국어, 수학을 배우는 대신 매주 숲에 뛰어놀며 뛰어놀며 교육을 받는다. 숲을 누비며 도량을 따라 물을 튀기며 건너 나무를 누운나무를 기어오르고 모닥불을 피우고 나무 자라는 법을 배운다. 매주 1일은 학교 밖 숲에서 보내는 학교 풍경이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 중 산림이 약 64%로 세계적으로 녹화에 성공한 나라지만 녹색교육은 걸음마 단계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유치, 설립이 유네스코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세계 환경히어로 갈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다.

제주생명의숲국민운동은 시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숲과 환경을 지키는 숲 보안관 활동을 나선다. 아울러 시민들을 위한 그린집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같이 씨앗을 심고 숲을 가꾸며 삶을 즐기고 건강을 지키는 체험활동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활동에 온 도민이 함께 나서주시길 기대해 본다.

도청 민원실, 그곳에 가면 그들이 있다. 산책하듯 여유로운 마음으로, 숨겨 두었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둘 챙겨 들고 오면 된다. 돈이든 물건이든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 법률, 세무, 행정, 기술 모두 그들의 영역이다. 자신의 일만으로도 바쁜 법무사

해가 바뀌고 어느덧 2월, 세상에는 추위 대신 코로나19가 내려앉았다. 북풍보다 더한 바이러스의 습격은 모두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그래도 우리들의 착한 히어로는 멈추지 않는다. 항상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릴 것이다.

아이들이 국어, 수학을 배우는 대신 매주 숲에 뛰어놀며 뛰어놀며 교육을 받는다. 숲을 누비며 도량을 따라 물을 튀기며 건너 나무를 누운나무를 기어오르고 모닥불을 피우고 나무 자라는 법을 배운다. 매주 1일은 학교 밖 숲에서 보내는 학교 풍경이다.

최근 어느 일간지에 게재된 영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숲교육 이야기다. 영국에서는 2017년부터 학교 내 자체적으로 숲교사 여러명을 두고 재학생에게 정규교과 과정으로 숲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에선 숲의

양복점 제일사의 약속. 모델비례 체형 맞춤정장. 30년 전통, 고객 체형에 맞춘 재단 원단과 공임만의 마진을 뺀 합리적 가격 절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회원제 서비스. http://www.cheilsa.co.kr

방수! 매우지 않습니다! 속속들이 채워줍니다!!! 에코방수? 에코방수란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벽, 창틀, 바닥, 옥상 등의 틈새에 아크릴수지와 마이크로시멘트를 속속들이 주입하여 안에 있던 물을 밀어내고 영구적으로 틈새를 채워주어 방수는 물론 단열효과까지 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수기법입니다. 에코방수 | TEL. 064-784-8404, H.P. 010-9086-8965